

# 조선 후기 권력과 문화의 소통구조 해명해

《조선 후기 궁중화원 연구(전2권)》 펴낸 강관식 교수



한성대 강관식 교수(45, 회화과)가 《조선 후기 궁중화원 연구(전2권)》라는 1260여쪽에 이르는 '대형' 연구서를 펴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이 책은 정조대부터 1백년간 지속된 규장각의 '궁중화원' 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 자비대령화원의 존재 사실 처음으로 밝혀

강교수는 이 책에서 규장각에 비장돼온 규장각 근무 일지인 《내각일력(內閣日歷)》 1245책에 수록된 녹취재(祿取才—추가 지급된 녹봉을 받기 위해 치르는 취재 시험) 자료를 집중 분석한다. 1백년 간 1백여명의 화원들이 치렀던 총 8백여회의 녹취재 시험문제와 성적 등도 분류 색인으로 만들어 별책에 묶었다. 실증적으로 치밀할 뿐만 아니라 궁중화원을 매개로 조선 후기 회화사는 물론 당시 왕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까지 파고들고 있다.

신윤복의 아버지 신한평을 비롯해, 김홍도·이인문·김득신·이한철·박인수 등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화가들이 모두 '자비대령화원'으로 활약했다. 궁중화원이 당시 화단(畵壇)을 대표했다는 증거다. 강교수의 작업은 이들 조선 후기 화원화가들의 활약상이 중인 계층의 성장이라는 사회 변동의 측면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궁중화원 제도의 설치와 운영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직결돼 있음을 실

이 책은 정조 이후 규장각에 둔 화가집단 '자비대령화원'을 최초로, 방대하게 다루고 있다. 김홍도, 신한평, 김득신 등 당대 이름 높던 화가들이 모두 이곳 출신으로 왕의 명을 받들어 그림을 그렸다. 강교수는 이 제도에 진경시대를 연결시켜 성찰한다. 조선 후기의 문화적 부흥을 중인층의 계층적 성장만이 아닌, 국왕에서 경화거족, 중인계층으로 내리는 권력과 문화의 안정된 소통구조에서 찾는다.

증했다는 점에서 회화사적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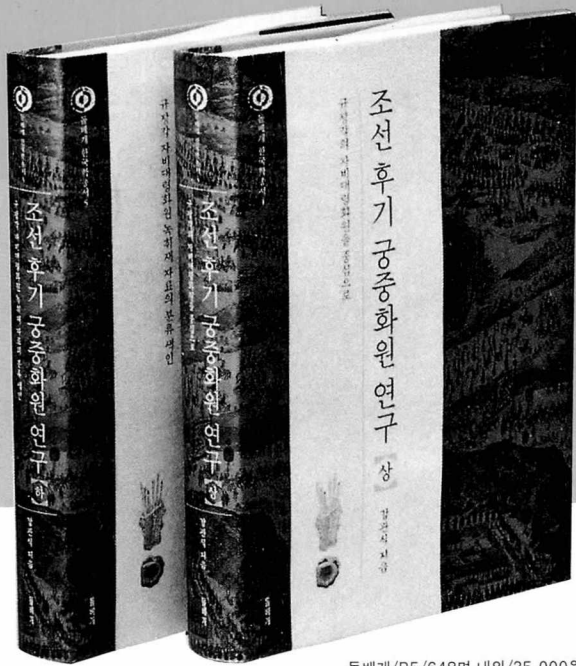
선행연구가 없는 작업을 왕성한 읽기와 치밀한 고증을 통해 완성해낸 강교수는 원래 화가 지망생이었다. 자신이 내성적이었다고 회상하는 그는 "사람과 만나지 않고도 세상과 대화할 수 있어 그림을 택했다"고 한다. 서울대가 동숭동에서 관악산으로 옮겨간 1세대인 강교수는 유난히 데모가 많던 시기에 대학생활을 했다. 한때 그림을 포기할까 생각도 했다. 문제는 그의 그림에 '현실'이 빠져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다고 사회문제로 직접 뛰어 들 수는 없었다. 그것은 반대로 '자아' 포기 행위로 생각됐기 때문이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우연히 당시 한국회화사를 강의했고 현재 간송학파를 이끌고 있는 최완수 선생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만 해도 진경산수화는 실학의 산물로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최완수 선생은 그것을 조선 성리학의 정신으로 해석했죠. 실학이 성리학을 부정하며 성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깊이 있게 완성한 학문이라는 주장도 그분이 처음 하셨습니다."

### 박물관의 유물카드에서 연구의 실마리 찾아

그는 당시 최완수 선생이 간여하던 간송미술관 행사에 부지런히 쫓아다녔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의 문인화와 풍속화에 매력을 느꼈다. 그 그림들이 "화가의 실존적 고뇌와 사회현실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혁명적 형식으로 다가왔다"고 그는 회상한다.

그 무렵 강교수가 창작에서 이론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생겼다. 간송미술관이 주최한 단원 탄생 250주년 기념전이 그것이다. 행사 준비요원이었던 그는 단원의 그림 목록을 만들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카드를 전부 뒤졌다. 그러다가 단원의 이름으로 된 전혀 생소한 그림을 한점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규장각도>다. 보관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돋보기로 번갈아 들여다보니 분명 단원의 그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정적이었다. 단순한 기록화인데다 김홍도의 화풍과 차이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둘베개/B5/648면 내외/35,000원 내외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의욕이 일더군요. 그래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조선 후기의 미술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번 책도 사실 의외의 산물이다. 강교수는 <소동파의 문인화론>으로 석사논문을 썼다. 박사논문도 그 주제를 이어 공제 윤두서로 준비하고 있었다.

“정신문화연구원의 마이크로 필름, 공제의 해남 생가에 보관중인 유물까지 관련자료를 모두 섭렵했는데,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예학의 사상적 계보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었죠.”

그럴 때 친하게 지내던 한 역사학자의 논문이 그에게 귀뜸을 해줬다. 규장각의 <내각일력>에 조선시대 화원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내용이었다. 조선 후기의 자료란 말에 끌렸지만, 사서들의 출퇴근 사항과 업무내용을 기록한 근무일지에 뭐 대단한 게 있겠냐 싶었다. 하지만 강교수는 무어에 이끌린 듯이 ‘문제의 사료’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엔 ‘자비대령화원’ (差備待命畫員)이라 불린 궁중화원 제도에 대한 방대한 기록이 뽁뽁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국보 내지는 보물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빨리 우리말로 옮겨놓고 싶었지만, 문외한 분야인 ‘법제’ 중심으로 기술돼 있어 해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조에서 순조까지의 기록을 그러저럭 정리해서 우선 <간송문화>에 발표했죠.”

#### 국왕-사대부-중인계층으로 조선 후기 문화흐름 읽어

결국 <내각일력>이 박사논문으로 간택됐다. 여기서 그는 영조까지의 화원제도도 문신관료 중심의 그것인데 비해, 정조시대부터는 왕권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정조시대의 그림

이 화려하고 수준이 높은 것을 ‘중인’ 계층의 경제적·문화적 성장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관점에 의심의 눈초리를 두게 만들었다.

“이번 책의 큰 틀은 국왕에서 경화거족으로 다시 중인계층으로 이어지는 권력과 문화의 소통구조입니다. 중인은 결코 중인계층 내부의 힘만으로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자비대령화원들의 그림도 그들의 순수한 예술적 성취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사철을 두루 섭렵한 왕과 각신들이 화원들을 가르치고 감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실제로 정조는 녹취제 시험결과가 못마땅하면 “요즈음 화원들은 소위가 심히 지나쳐서 엄한 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잘 그리지 못하니, 그자들의 팔다리 가죽은 소가죽인가 말가죽인가”라며 크게 나무랐다. 조선 후기 풍속화나 책거리 그림을 민화라 해 서민문화의 발달로 설명하는 논리에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끼어든다. 강교수는 이를 ‘녹취제’ 시험 가운데 여덟 문의 하나인 ‘속화’와 관련시켜 해석한다. 임금들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부러 화원들에게 도시 풍정과 세시 풍속, 농촌 향속 등을 그리게 했다는 것이다. 속화의 일종인 ‘책가도’ (冊架圖)의 경우도 “서양의 명암법과 원근법을 수용한 중국 황실의 고급회화가 왕실을 통해 전해져 향유되다가 대중화된 것”으로 봐야 옳다고 주장한다.

이번 책을 통해 조선 후기 회화사의 밑그림을 그린 강교수는 앞으로 자신의 학문적 주제를 심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조선 후기의 진경풍속’이 그것으로, 그가 진경산수화와 풍속화를 합성해 만든 어휘다. 이는 진경시대에 그려진 문인화, 풍속화, 초상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들 그림을 분석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문화창출자들이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느꼈는지 회화적으로 성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강성민 기자

#### “꽃 밟으며 돌아가니 말발굽에 향기 나네”

연구실 문을 열자 그가 반갑게 맞아준다. 자리를 잡고 앉자 주위가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껏 다녔던 교수 연구실 가운데 가장 컸다. 다른 연구실보다 두배는 넘어 보였다. 놀라는 표정을 짓자 그가 “좀 넓죠? 옛날에는 실습실이었어요”라고 ‘해명’ 한다. 오는 사람마다 눈치를 챘을 테니 그럴 만도 하다. 그의 저서를 연상시키는 연구실 만큼 역시 책이 굉장했다. 얼핏 보니 <한국문집통간> <조선왕조실록> <한국미술전집>이 꽂혀 있고 그 옆에 오늘의 주인공인 <내각일력>이 보였다. 물론 복사본이다. “저것이 없었으면 조선시대 궁중화원들의 존재가 그냥 역사 속에 묻혔겠구나” 생각하니 그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다.

인터뷰는 두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처음에 좀 멧쩍어하던 강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변으로 변했다. 책에서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사상적 계보에 대한 이야기로 치달았다. 그는 특히 정조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정조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학문이 깊었는지 아느냐고 열변을 토했다. 또 강교수는 기억력이 비상했다. 중국 화가들이 왕이 내린 시제를 해석해 그림을 그려바치던 시절로 이야기가 옮겨갔을 때, 유성의 <형설총설>에 나온 “꽃 밟으며 돌아가니 말발굽에 향기 나네”란 시제를 “말 뒤로 나비떼가 뒤쫓아가는 모습”으로 그려낸 한 화가의 경우를 읽은 적 있다고 하자, 그는 즉석에서 그 시구를 외고, 연달아 그와 관련된 몇 편을 유장하게 읊어줬다.